Russia
모스크바 사무소



# 2020년 러시아 설탕 시장 동향 (2020.08 기준)

## 내수시장

### 사탕무 생산 동향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러시아 사탕무 파종면적은 2019년에 비해 17.9 % 감소했으며 940만 헥타르를 조금 넘었다.

전반적으로 파종면적은 감소하였으며 북-카프카스 러시아(-24.0 %, 31.7 천 Ha), 볼가 러시아(-22.1 %, 182.1 천 ha) 및 중부 러시아 (-18.4 %, 500.1 천 ha)를 기록하였는데 이상기온으로 인한 불리한 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탕무의 품질은 매우 좋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설탕협회(Soyuzrossahar)에 따르면 2020년 7월 21일 현재 사탕무의 당도는 2019년 수준(+1.5%)보다 약간 높으며 2018년(+ 10.7%)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역적으로 분석해 볼 때 볼가 러시아는 2019년까지 +9.3%, 북 카프카스 러시아 +7.2% 및 남부 러시아 +2.6%의 당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러시아의 사탕무 평균 중량은 전년보다 -16.1% 적지만 2018년 수준과 유사한(+ 0.5 %) 수준을 유지하였다. 예외적으로 여름의 강수량이 적은 시베리아 연방지구의 평균 중량은 전년치보다 39.6% 높은 222g을 기록하였다.

*2020년 사탕무 당도 전년 대비 1.5% 증가 (2020. 7/21 현재)
*2020년 사탕무 중량 전년 대비 16.1% 감소 (2020. 7/21 현재)

**[ 러시아 사탕무 생산 동향 (지역별, 당도 증가율, 2020. 7/21 현재) ]**

| 지역 | 파종지역 | | | | | 당도 | | | | |
|---|---|---|---|---|---|---|---|---|---|---|
| | 면적 (천 헥타) | | | 증가율 (%) | | 평균 (%) | | | 증가율 (%) | |
| | 2020 | 2019 | 2018 | 2020 대비 2019 | 2020 대비 2018 | 2020 | 2019 | 2018 | 2020 대비 2019 | 2020 대비 2018 |
| 러시아 연방 | 940.1 | 1145.0 | 1126.7 | -17.9 | -16.6 | 13.5 | 13.3 | 12.2 | +1.5 | +10.7 |
| 중부 러시아 | 500.1 | 612.7 | 604.7 | -18.4 | -17.2 | 13.2 | 13.6 | 12.1 | -2.9 | +9.1 |
| 남부 러시아 | 202.8 | 229.4 | 225.6 | -11.7 | -10.2 | 15.9 | 15.9 | 15.7 | +2.6 | +1.3 |
| 북 · 카프카스 러시아 | 31.7 | 41.7 | 42.2 | -24.0 | -24.9 | 14.9 | 13.9 | 14.0 | +7.2 | +6.4 |
| 볼가 러시아 | 182.1 | 233.7 | 231.4 | -22.1 | -21.3 | 11.7 | 10.7 | 9.3 | +9.3 | +25.8 |
| 시베리아 러시아 | 23.6 | 27.5 | 23.4 | -14.2 | +0.9 | 12.2 | 12.5 | 10.0 | -2.4 | +22.0 |

출처 : Rosstat, Soyuzrossakhar

출처 :
https://specagro.ru/analytics/202008/ezhemesyachnyy-obzor-rynka-sakhara-ot-3-avgusta,
러시아 농업부, 러시아 통계청

사탕무 잎의 중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2018년과 비교 시 9.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대부분 남부 러시아 지역으로 온도상승으로 인해 27.8%, 276g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중부 러시아의 경우 잦은 우기로 인해 3.9% 감소하였으며 최대 249g으로 기록되었다.

* 2020년 사탕무의 개당 평균 중량은 전년 대비 3.2% 성장

## 설탕 생산 및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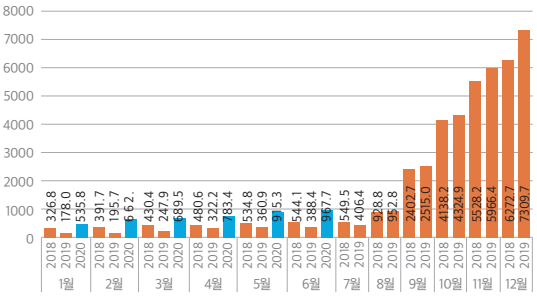
농산물 원자재의 가공 및 유통은 여전히 러시아의 주요 산업 원동력이 되고 있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식량 생산은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2020년 6월 총 52.4천 톤의 사탕무가 생산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배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2020년 상반기 총 약 백만 톤의 원료가 생산되었으며 이 중 967.7톤의 설탕이 제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완제품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전년 대비 원료의 경우 2.5배, 완제품의 경우 1.8배가 증가한 것이다.

* 2020년 6월 설탕 생산 전년 대비 1.9배 증가
* 러시아 백설탕 생산 967.7천 톤(2020년 상반기 6개월 종합)

2019년의 경우 동일한 제품 생산에 8개월이 소요되었는데 2019년 1~8월 생산량은 952.8천톤을 기록했으며 2018년의 경우 928.8톤을 생산하였다.

**[ 누적 총 백설탕 생산량 (천 톤) ]**




출처 : 러시아 통계청(Rosstat)

금년 설탕 생산업체들은 매월 약 40만 톤 이상의 설탕을 제조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기준 수요증가로 인해 5월 대비 12.6% 증가한 466.9천 톤을 출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9년 대비 37%, 2018년 대비 30.4%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상반기 총 2.8백만 톤의 설탕이 출하되었으며 앞선 2년여간의 평균 판매 기록을 경신하였다. 2019년과 2018년의 경우 총 2백만, 2.3백만 톤이 각각 판매되었다.

## 가격동향

7월 중순부터 설탕 생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산지의 수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 현재 사탕무 파종 감소로 인한 총 수확량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러시아 설탕 생산 가격은 27,625루블/톤으로 한 달 동안 8.6%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베리아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의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인데 평균 가격은 26,325 루블/톤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월별 최대 가격 상승은 남부 러시아에서 기록되었으며 12.1% 상승한 26,714루블/톤에 거래되고 있다. 가격 상승과 관련 2019년 가격 폭락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현 가격 수준은 여전히 작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이다.

* 러시아 평균 설탕 산지 출하가격 (27625루블/톤(2020. 7/29))

러시아 지역별 설탕 가격 추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장 높은 설탕 가격은 바쉬꼬르스탄 공화국으로 30,755루블/톤을 기록하였으며 리페츠크와 탐보프 지역의 경우 29,000루블/톤, 중부 러시아 28,127루블/톤, 북 카프카스 28,000루블/톤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 러시아 설탕 산지 가격은 연초 이후 38.6% 상승세를 기록함

**[ 설탕 제조업체 공급가격 (VAT 포함), (루블/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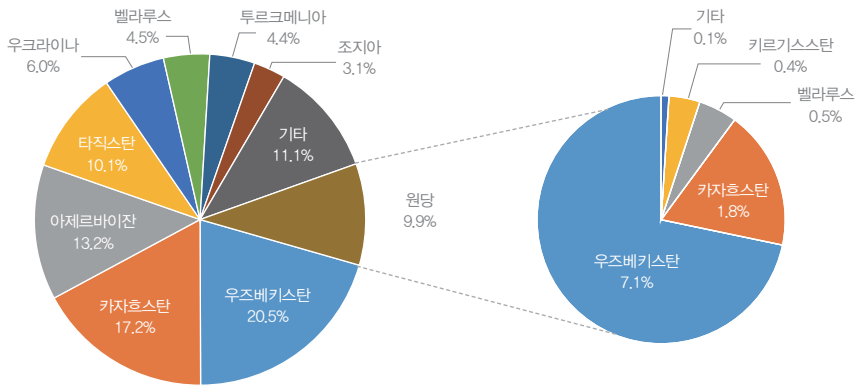
| 지역 | 29.07. 2020 | 30.06. 2020 | 증감율 (+/-), % | | |
|---|---|---|---|---|---|
| | | | 월간 | 연초 | 연간 |
| 러시아 연방 | 27625 | 25443 | +8.6 | +38.6 | -0.1 |
| 중부 러시아 | 28127 | 25959 | +8.4 | +43.7 | +4.9 |
| 남부 러시아 | 26714 | 23820 | +12.1 | +38.8 | -1.7 |
| 북 카프카스 러시아 | 28000 | 26000 | +7.7 | +19.1 | -25.2 |
| 볼가 러시아 | 27811 | 27057 | +2.8 | +31.2 | -6.1 |
| 시베리아 러시아 | 26325 | 26325 | = | -0.7 | -26.7 |

출처 : 러시아 통계청(Rosstat)

산지 설탕 출고가에 비해 소매시장의 가격은 변화 추이가 더디며 최근 러시아 한 달 평균 소매가격은 2.3% 증가한 36.85루블/Kg을 기록하였다.

**[ 러시아 설탕 수출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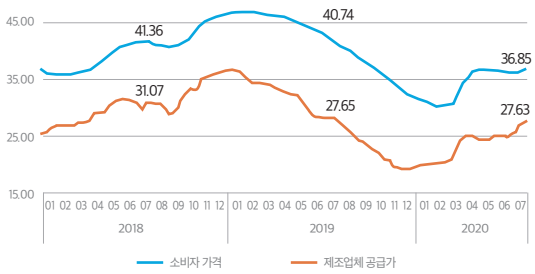
(2019년 8월 1일 ~ 2020년 7월 26일, HS Code 170112, 170113, 170114, 170199 기준)




출처 : 러시아 관세청(FCS)

시베리아 지역의 경우 7월 말 현재 전월 대비 4.2% 증가한 40.24루블/kg로 조사되었으며 볼가 러시아 지역은 34.13루블/kg으로 러시아 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연초 이후 설탕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18.1%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 소매가의 9.5% 낮은 가격이다. 현재 러시아의 설탕 소비자 가격은 지난 2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산지의 출하가격은 2018년 대비 11.1%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러시아 평균 설탕 가격, Rub/kg (2018-2020) ]**




출처 : 러시아 농업부(Rosstat)

설탕 가격 관련 국내 산지가격이 전년도 지표를 따라잡고 있다면 러시아 MICEX-RTS 증권거래소의 선도계약 가치는 2019년 동기간 가치를 12% 이상 초과했다. 2020년 7월 29일 현재 러시아의 설탕이 29,000루블/톤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이 중 가장 높은 가격은 볼가 러시아 지역으로 톤당 29,997루블을 기록하였다. 7월 초부터 인상된 설탕 가격은  산지의 수확 시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설탕협회에 따르면 크라스노다르 지역이 가장 먼저 사탕무 수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수출 동향

2020년 7월 한 달간 러시아 설탕 수출 물량은 64.9 천 톤으로 전월대비 19.7% 감소하였다. 이 자료에는 EEU 체결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대상 수출액은 수집되지 않았다.

설탕류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은 백설탕의 수출인데 2019/2020년 최초로 아프리카 베넹 공화국 120톤과 에스토니아 0.23톤이 수출되었다.

대부분의 수출은 우즈베키스탄(38.1 천 톤), 아제르바이잔(7.9 천톤), 우크라이나(6.4 천 톤)으로 전체 수출액의 80.9%를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점진적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농업부는 기초 원자재 수출에서 1, 2차 가공식품 수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에스토니아 수출을 계기로 수출 다변화 정책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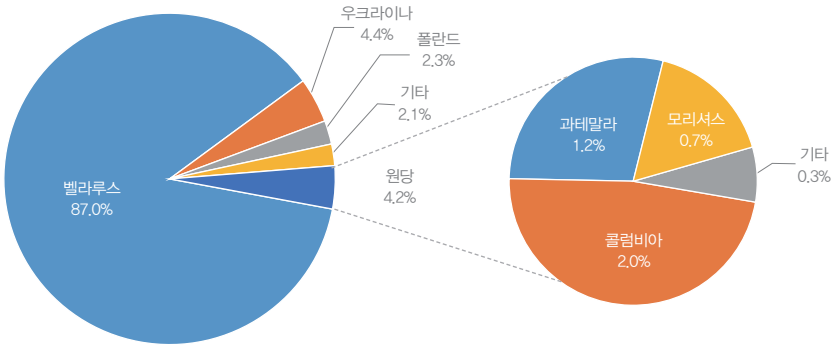
원당 수출량의 경우 총 77.6톤을 기록하였는데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62.2톤)으로 수출되었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된 러시아 기업의 설탕 제조원료로 수출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설탕류 수출의 주요지역으로 남부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주와 중부 러시아 리페츠크 주가 포함되는데 동지역의 수출 물량은 31.2 만 톤 (총 수출량의 48.1%)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해외 설탕 공급은 총 1,400 천 톤을 넘기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배의 증가 폭으로 2020년 상반기 수출량은 860.2 천 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7.9배의 증가 폭을 보여주었다.

**[ 러시아 설탕 수입 구조 ]**

(2019년 8월 1일 ~ 2020년 7월 26일, HS Code 170112, 170113, 170114, 170199 기준)




출처 : 러시아 관세청(FCS)

러시아산 설탕류의 2019/2020 시즌 주요 수출국은 물론 CIS 국가들로 EEU 국가를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281.2 천 톤), 카자흐스탄(235.3 천 톤), 아제르바이잔 (181.1 천 톤), 타지키스탄(138.4 천 톤)은 전체 수출시장 내 점유율 67.7%(836.0 천 톤)을 기록하고 있다.

원당은 주로 우즈베키스탄(97.4 천 톤)과 카자흐스탄(24.0 천 톤)으로 수출되며 수출시장 점유율은 89.9%에 달했다.

## 수입 동향

러시아의 설탕류 수입 실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한 달간(29.06~26.07.2020) 총 0.7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월 대비 12.2% 증가한 실적으로 EEU 회원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실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의 대부분은 원당 수입으로 전월 대비 35.5% 증가한 0.6톤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비해 백설탕의 수입은 49.7% 감소한 0.1톤에 불과하였다.

주요 수입지역은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전체 수입량의 85.7%를 차지하였으며 2019/2020 시즌 총 수입량은 168.1톤으로 전 시즌 대비 41.1%의 감소율을 보였다.

원당의 수입량은 4.8% 소폭 증가하였는데 전체 설탕류 수입의 53.7%인 92만 톤이 수입되었다.

벨로루시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 주요 수입품은 백설탕 완제품이며 전체 벨라루스 생산량의 90.8%를 러시아가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당은 주로 콜롬비아(3.4 천 톤), 과테말라(2.0 천 톤), 모리셔스 공화국 (1.2 천 톤)에서 수입되었으며 그 비중은 6.6 천 톤 또는 94.3%에 달하고 있다.

2019/2020 시즌 벨로루시에서 수입한 백설탕은 146.2 천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시즌에 따라 대부분 별도의 공급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ey Point**

러시아 국민들에게 설탕은 매우 중요한 식품류 중 하나이며 소비에트 연방 시절 대단위 사탕무를 경작하여 보드카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인들에게 설탕 가격의 안정은 농업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러시아 정부는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펜데믹의 영향으로 가격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정부 정책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러시아 설탕 가격의 추이 변화는 러시아 내 음료 제조원가 및 각종 식품류 제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입제품들과의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의 설탕류 수출입에 있어 통상 수입보다 수출의 비중이 컸으나 대부분 원자재 수출에 기인한 구조로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가공품 생산 및 수출 지원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서구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유럽과의 농산물 수출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출 다변화를 러시아 정부는 모색하고 있는데 수출 뿐 아니라 수입에 있어서도 설탕류 가공식품 분야는 러시아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기호상 당분 섭취가 높은 편인데 기존 유럽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제한적으로 변하며 아시아권 국가들로부터의 설탕류 수입을 검토하는 유통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격경쟁력 부재로 인한 수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가공품 수출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전통적으로 극동과 서부지역의 거리 편차로 인해 한국산 완제품의 수출시 극동지역을 먼저 개척하고 브랜드를 알리며 서부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출처 : https://specagro.ru/analytics/202008/ezhemesyachnyy-obzor-rynka-sakhara-ot-3-avgusta 러시아 농업부,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관세청 자료 종합